‘과거 발목’ 악몽의 문자메시지

직업소개소 업주, 8년전 유흥업소 탈출 여종업원에 “돈 보내라”

‘계좌, 000XXXX, 25일 날짜로 이달엔 50만원 송금하고 담달(다음달)부터는 30만원 송금하라하신다. 3월 첫달부터 꼭 약속 지켜주길 부탁한다. 이모 중간에서 힘들지 안게(않게) 해다오. 03/21 오후 1 : 21’

한 때 유흥업소 등에서 일했던 A(여·31)씨는 최근 한 통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화들짝 놀랐다. 8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냈을까?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가족들이 알게되면 어쩌나 몸서리가 쳐졌다. 잊고 싶은 과거의 기억들, 떠올리기도 싫은 일들이 생각나며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 2004년 직업소개소 업주 김모씨는 유흥업소에 소개시켜준 A씨등 3명에게 수개월치 선불금을 받고 도망치는 이른바 ‘탕치기’를 강요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처벌받았다. 김씨의 강요로 A씨 등은 수차례 탕치기를 할 수 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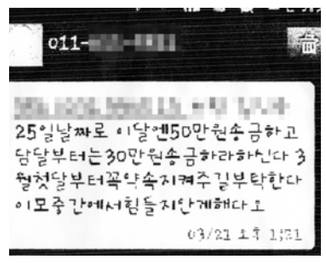
당시 A씨 등 3명은 유흥업소를 탈출해 광주 YWCA 성폭력상담소를 찾은 뒤, 직업소개소 업주 등이 탕치기를 강요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었다. 이후 광주지법은 여성 3명에게는 선불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고, 직업소개소 업주 김씨 등은 직업안정법 위반죄로 처벌됐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난 지 8년 만에 직업소개소 업주 김씨가 A씨 등 3명의 여성에게 느닷없이 수십만원의 현금을 요구해온 것이다.

A씨는 당장 김씨에게 항의하고 경찰에 고소하고 싶지만 자신의 숨기고 싶은 전력을 가족들이 알까봐 애만 태웠다. 결국 A씨와 당시 함께 일했던 B씨(32), C씨(33) 등 3명은 최근 다시 광주 YWCA 상담소를 찾아 고충을 털어놨다.

광주 YWCA 상담소 측은 김씨 등이 수소문 끝에 A씨 등의 연락처를 알아낸 뒤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과거’를 들먹이며 돈을 뜯어내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 YWCA측은 여성들에게 문자를 보낸 김씨를 만나기 위해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했지만 김씨와 접촉하지 못했다.

갑작스런 문자 메시지를 받은 A씨는 “기억하기도 싫은 일인데 어떻게 알고 연락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유흥업소를 떠나 착실하게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는데 가족들에게 알려질까봐 무척 두렵다”고 불안해했다.



광주 YWCA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접대부를 소개하고 관리하는 업주들이 유흥업소 성매매 여성뿐만 아니라 거래 관계가 있었던 과거의 여성까지도 리스트를 작성,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책을 강구중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미친 유가에 가짜 판친다

유사 석유 4만ℓ 만들어 판 일당 검거

값싼 석유 원재료를 아무렇게나 섞어 만든 유사석유를 제조하고 판매한 일당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휘발유 가격이 ℓ 당 2000원선을 넘어서며 고공행진을 계속하자 유사석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가짜 석유를 만들었다.

광주경찰청 수사2계는 5일 유사석유 제조책 손모(48)씨와 중간공급책 김모(44)씨, 소매상 박모(여·50)씨 등 5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 등은 지난해 10월께 석유화학업체들이 몰려 있는 경북 경산시에 자동차 연료첨가제 생산공장을 설립한 뒤 석유 원재료를 별다른 기준 없이 마음대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시가 6600만원 상당의 유사석유 4만ℓ 를 제조하고 판매한 혐의다.

중간 공급책인 김씨는 광주시2 광산구 도천동에 위험물 판매취급소를 운영하면서 공급받은 유사석유 1만200ℓ 를 보관하고, 이 가운데 6680ℓ 를 소매상 11명에게 판매했다.

또 소매상 박씨는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 판매점을 차려놓고 플래카드 등으로 제품을 홍보,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ℓ 당 1650원에 모두 650ℓ 를 팔았다.

경찰 조사 결과 제조책들은 허가받은 자동차연료첨가제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가짜석유를 500㎖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공급책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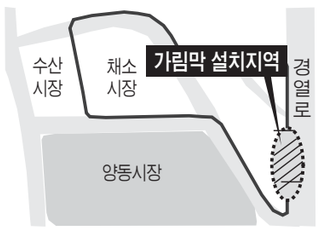
유사석유는 비싼 첨가제 원료를 적게, 값싼 원료인 메탄올은 많이 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으며, 전문가들은 유사석유를 사용할 경우 자동차 엔진 또는 중요부품에 큰 결함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양동시장 주변 상가 불법 가림막

서구청 “어찌 할꼬”

상인 2000만원 들여 설치
구청 “철거해야 하는데…”
강시장 “공익 측면 검토”



광주시 서구가 양동시장 주변 상인들이 인도에 불법으로 설치한 가림막의 처리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져있다. 설치 자체는 불법이지만 상인, 노점상 그리고 시민 등에게 편리한 이동 공간 확보라는 긍정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5일 광주시와 서구, 양동시장과 주변상가 상인들에 따르면 양동시장 경열로 인근 상가 상인 8명이 지난해 10월 2000만원을 부담해 상가와 인도 사이에 시민 편의를 위해 길이 30m, 높이 3m, 폭 5m 크기의 철골구조 가림막을 설치했다. 〈그림 참조〉

하지만 서구청은 지난해 11월29일 이 구조물을 사전 도로점용 허가없이 무단증축된 불법 건축물로 판단하고 자진철거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상인들은 지난 2월 강운태 시장과 만나 사정을 설명했고, 강 시장으로부터 “생업을 위해 자부담으로 설치했고 상인들과 시민들은 환영하고 있으니 공익적 측면에서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서구청은 “불법 건축물에 해당돼 방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난 2월2일 5개 건물 건축주 8명에게 이행강제금 1063만4000원을 부과했다. 다만 상인들이 상인회를 결성해 ‘인정시장’ 등록을 추진하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아케이드 시설을 설치해 주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서구청은 “해결책을 찾고 있지만 해당 시설물 자체는 불법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 전면부인 경열로 인근 상가 지역 인도에 상인들이 시민 편의를 위해 불법으로 설치한 가림막.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유력 후보 부인 수행원 식사비 제공 포착

나주서… 경찰 수사 착수

4·11총선 초박빙 격전지로 분류되는 나주·화순선거구에서 유력 후보 부인의 수행원이 나주 한 초등학교 자모회원들을 상대로 저녁식사비를 제공한 혐의가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나주경찰은 5일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한 유력 후보 측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나주 한 초등학교 자모회 회원 8명 중 2명을 지난 4일 밤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자모회 회원들이 지난 4일 오후 7시께 나주시내 한 횟집에서 저녁식사 모임을 갖던 중 뒤이어 참석한 선거운동원 복장을 한 후보의 부인과 수행원이 찾아왔으며, 이중 수행원이 식대로 20여만 원을 대납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조사를 받은 두 명의 자모회원 중 A씨는 “B후보 측에서 식대를 대납했다”고 밝힌 반면, 같은 모임 회원 C씨는 “대납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참석했던 나머지 회원 6명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하고, 필요할 경우 이 후보자의 부인과 수행원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중부취재본부=정칠현기자 chjung@

김일태 영암군수 검찰, 불구속 기소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5일 “김일태 영암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해 9월 지역신문과 인터뷰에서 “유선호 의원이 지역을 위해 해 놓은 일이 하나도 없으며 교부금 단돈 1억원이라도 가져왔으면 당장 군수직을 그만두겠다”는 등의 표현으로 유 의원을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유 의원의 영암지역 사무소 사무국장이 영암군 선관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김 군수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로부터 지난 1월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중립을 요청받기도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하이마트 납품업체 사장 검찰 조사 후 투신 자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하이마트 수사에서 최근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하이마트 납품업체 사장 박모(51)씨가 지난 4일 서울 양천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 양천경찰에 따르면 투신한 박씨는 이날 새벽 5시10분께 발견됐으며 정확한 투신 경위 등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회삿돈 22억 횡령 심형래 불구속 입건

쌍나팔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5일 회사자금 22억원을 횡령하고, 가스분사기를 실탄 발사용으로 개조해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및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위반)로 ㈜영구아트 대표 심형래(54)씨를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66회에 걸쳐 회사자금 9억원을 인출해 도박·유흥비로 사용하고, 회사자금 13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것.

○…심씨는 2009년 영화 소품인 가스분사기 6정을 실탄 발사가 가능하도록 개조해 자체 제작한 실탄을 장전, 9발의 실탄을 발사하기도 했다고.

/연합뉴스